“부산 시민과 함께 환우돕기 나섭니다”

원광사 양산부산대학병원 난치병어린이 후원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가 부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난치병어린이를 돕는다.

원광사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발전후원회 후원금 전달식’ 이 지난 6월 9일 양산부산대학병원(원장 성시찬) 원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 300만원은 원광사가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사찰 앞 문수전에 ‘난치병어린이돕기’ 불전함을 설치, 근처 약수터를 오가던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을 꾸준히 모은 보시금이다. 불자 비불자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기에 이번 전달식의 의미는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은 “통도사에서 소임스님으로 지낼때부터 ‘가만히 법당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신행단체 등을 통해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해왔다. 사찰은 크지 않지만, 원광사를 방문하고 함께 해주는 신도님들의 뜻을 우리 사회 필요한 곳에 회향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 병마로 인해 고통 받는 천진불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며 후원금을 모으게 된 계기를 밝혔다.

성시찬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은 “후원할 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환우 가족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병원은 아시다시피, 경남 내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병동을 가진 유일한 대학병원이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지만, 병원 내에서의 복잡한 후원 절차 때문에 병마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적다.

1년동안 사찰 앞 불전함 설치
인근 약수터 오가던 시민들
십시일반 보시금 모아 전달
난치병 환우돕기 이어갈 예정

인오 스님의 뜻을 시작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 어린이 병동 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인오 스님은 후원금 중 100만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 내 법당 자경원(지도법사 지현)의 어린이 환우 가족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전달 되기도 했다.

자경원 지도법사 지현 스님은 “병원을 처음 건립할 때부터 종교실이 정해져 있었을 만큼, 병원 내의 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우 가족들의 고통 받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한다. 또한, 오늘 위로금을 받은 가족들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환우 가족들에게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늘 기도한다”고 전했다.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6월 9일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발전후원회 후원금 전달식’ 을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가졌다.

격려금을 받은 법운지(37)보살은 “지현 스님은 좋은 일을 항상 조용히 하신다. 기부금 이야기도 오늘 듣게 됐다. 인오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위로금을 받은 것도 전부 좋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아픈 아들 때문에 자주 법당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나마 항상 신심을 간직하고자 한다”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지현 스님과 인오 스님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인오 스님은 환우 가족들에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이 바로 신심이다. 신심이 높으면 원하는 것도 성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심을 잃지 말고 인연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발원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어린이 환우를 위한 원광사의 자비행보는 이번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꾸준히 양산대학병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천도재로 전쟁 아픔 씻고 평화발원

범어사 · 홍법사 등 부산 사찰들 보훈 및 추모 행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발원하는 보훈의 달 행사가 부산 사찰 곳곳에서 봉행됐다.

6월 6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제2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가 홍법사 야외 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육법공양으로 시작한 홍법바라밀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설동근 동명대 총장,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용사 10여명과 참전용사 3명 등 사부대중 4천여명이 참석했다.

1951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샘(88, Sam) 씨는 “방문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망설였다. 하지만 방한을 하면서 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과 강인함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전 천도재 및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특별법문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호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제4회 호국의 숨결대회’ 가 경내 야외에서 펼쳐졌다. 3천여 초 · 중 · 고 학생들은 그리기 및 글짓기, 서예로 경합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편, 같은날 범어사에서는 ‘호국영령과 수륙 고혼을 위한 천도재’ 가 범어사 대웅전 앞 영단에 위패를 모시면서 시작됐다.

홍법사 천도재에 초대받은 미군참전용사및 가족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범어사, 호국영령 천도재 등

‘임진왜란 이후 호국승병 각 열명영가’, ‘진도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 각 열명영가’ 등 나라를 위해 혹은 예기치 못한 불의로 세상을 떠난 영가들의 위패를 모신 범어사는 헌화, 천도재 의식을 비롯한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어, 주지 수불 스님의 봉행사, 이윤희 범어사신도회장의 추도사 등의 엄숙한 순서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주지 수불 스님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극복하고 부흥의 계기로 삼았다. 오늘 천도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분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며 천도재의 의의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천도재에는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스님, 승가대학장 용학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편안한 미소로 환우 마음 위로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약사여래불 점안식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이사장 능행)이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6월 5일 봉행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약사여래불 점안식에는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 및 소임스님, 약사여래불을 불사한 오채현 조각가가 참석했다.

오채현 조각가는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병고에 힘겨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부처님의 얼굴을 미소 띤 모습으로 불사하게 됐다. 또한, 가족 분들이 겪는 아픔까지 안아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처님이 되셨으면 한다”며 약사여래불의 의미를 전했다.

오채현 작가가 6개월 동안 제작한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의 약사여래불은 경주 화강석으로 높이가 3.5미터에 달하며 무게는 16톤이 넘는다. 한편,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은 6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 점안된 약사여래불

김나영 객원기자

안동 대선정사 점안식 및 개원법회

안동 용상리 대선정사(주지 용산)가 6월 8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법정 법사스님과 종단 종회의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홍보부장 청담 스님 등 사부대중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예불의식과 함께 관음시식과 합동천도재 등이 진행됐다.

종정 법정 법사스님은 “공덕은 쌓을수록 커지고 구슬은 굴려야 보배가 되듯이 기도정진을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염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주지 용산 스님은 “대선정사의 상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이 나누고 베풀어, 나와 더불어 사부대중들과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안동 대선정사가 6월 8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가졌다.

사찰 속 문화체험 특별한 추억 선사

기장 동림사 청소년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진행

청소년을 위한 1일 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 가 6월 5일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에서 진행됐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양운중학교 80여 학생들은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학교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전통염색하기, 선화 그리기, 명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기장 동림사가 마련한 청소년을 위한 1일 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 장면.

양운중학교 학생들은 평소 진로 활동인 ‘창의체험활동’ 중 하나로 동림사에서 문화체험을 선택해 사찰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미경(51) 양운중학교 교사는 “주지 성타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 지루하지 않게 신체부터 창의 활동까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동림사 체험형 템플스테이의 장점을 꼽았다.

양운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현아(16)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에만 열중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사찰이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고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지 성타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심하다가 이와 같은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또한, 불교문화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고 싶었다”며 템플스테이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성타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참선과 선화 그리기가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051)508-2917

김나영 객원기자